



## ‘100만 통일선봉대’, 경기를 시작으로 뚫 올려

### 5월 24일 경기운동본부 발대식... 김경재 회장 격려사

#### 나머지 시·도지부도 발대식 예정

한국자유총연맹이 100만 통일선봉대 양성의 첫발을 힘차게 내디뎠다.

경기도지부는 5월 24일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경기홀에서 김경재 중앙회장과 지부 및 31개 시·군지회 간부, 회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선봉대 경기운동본부 발대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영 국회의원, 윤화섭 경기도의회 의장, 서강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정용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남창수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등 지역기관·단체장 다수도 함께해 행사를 빛냈다.

이날 발대식은 김경재 중앙회장이 지난 4월 28일 제16대 중앙회장 취임식에서 선포한 ‘통일선봉대 100만인 양성’을 위

한 뜻 깊은 첫 걸음이며, 도지부는 이를 기점으로 31개 시·군별로도 발대식을 갖고 통일선봉대 15만 명 영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선봉대는 연맹 조직의 민간통일운동 역군으로의 발전적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통일 이전 상황에는 북한 급변 사태 등에 능동 대비하고 통일 이후에는 북한 안정화 및 자유민주체제로의 이행을 위한 선무요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김경재 중앙회장은 조남은 경기도지부 회장의 기념사에 이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 연맹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 체제의 변화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100만 통일선봉대’를 최우선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결정적인 때가 오면 대한민국 헌법



◇5월 24일 경기도지부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통일선봉대 경기운동본부 발대식’.

가치와 국가 정체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확산하는 통일의 전도사가 되어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경기도를 시작으로 나머지 16개 시·도 지역에 통일선

봉대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100만 통일선봉대 양성을 본격적으로 실천에 옮길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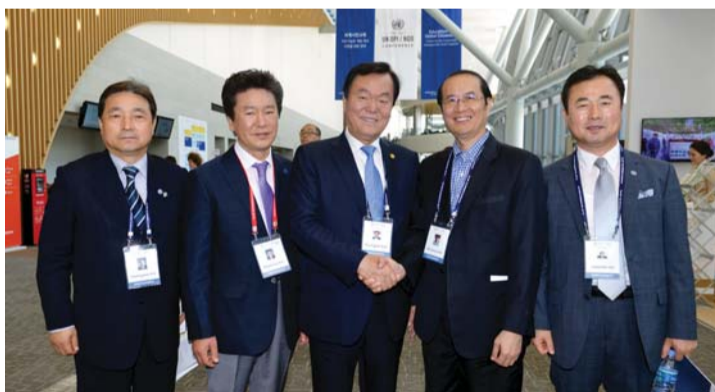
##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

#### 김경재 회장 참석 각국 지도자들과 교류

김경재 중앙회장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NGO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시민교육-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5개의 라운드테이블과 48개 워크숍, 선언문 채택 등으로 진행됐다.

김경재 회장은 컨퍼런스 개최식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지위 NGO 대표 자격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황교안 국무총리, 김관용 경북지사 등 내빈, 그리고 한국 등 100여 개국 NGO 관계자 4000여 명과 함께 개최식에 자리했다.



◇왼쪽부터 김광석 포항 회장, 김하영 경북지부 회장, 김경재 중앙회장, 시에원황 WFLD 사무총장, 안재천 의성 회장.

#### 김경재 회장, ‘2016 경영대상(조직혁신)’ 수상

김경재 중앙회장이 5월 24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일요서울신문> 주최로 열린 ‘2016 대한민국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조직혁신 부문 경영대상’을 수상했다.

김경재 회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조직 쇄신에 힘썼고, 특히 ‘통일선봉대 양성’을 선포해 연맹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 자유마당

커버스토리

김정은의 ‘핵·경제 병진’ 노선

파워인터뷰

유호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北核 막고 평화통일 길 여는 일이 민주평통의 과제”

사회쟁점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06  
2016 vol.83